

MYANMAR

ဝေဒ္ဓိကော့ 김진명 선교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길에서
여전히 그 길가에 계서
눈을 뜰면 보이리니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위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 피커스 < 주님을 산 길에서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소에서 응답하시느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3편-

살롬~!

우리의 방패 시요 영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미얀마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기도편지로 인사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우기도 이젠 하루건너 비가 올 정도로 그 수를 줄여감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는 자연을 봅니다. 올해는 여느 해 보다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수해가 난 지역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6:18-

이곳 미얀마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수많은 얼굴과 상황을 가장하여 공격해 옵니다. 관계를 분열케 하고,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며, 교만케 하는 악한 영들이 주의 사람들과 사역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중보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은 많은 상황가운데서 낮추시고, 부족하게 하셔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라. -삼하23:2-

매일의 걸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차근히 가르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약하여 넘어질 연약한 저임을 아시는 주님은 요즘 저를 말씀으로 갈아 엮으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순간 사방이 막히고, 혼자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영이 나를 말씀가운데 깊이 인도하시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히 보여주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늘 넘어지지 않게 저를 지키시는 그분의 세밀하심과 위대하심의 임재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T.I 신학생들에게 강의 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학 장성배 교수님

주님이 일하신 흔적...

지난 8월 6일 부터 12일까지는 용두동교회 단기선교 팀이 다녀갔습니다. 용두동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감리교 신학교(MTI)가 25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며 목회 세미나, 신학생 세미나, 교사세미나, 부흥집회, 찬양제로 미얀마 남 감리교단을 섬겨 주셨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척박한 미얀마 땅에 단비와도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얀마 중북부 쪽에 위치한 '나웅초' 지역에 남기정, 박순희 권사님 가정이 '나웅초 감리교회'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중국인 집성촌으로 고아나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함께 기숙하며 신앙훈련과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권사님 가정의 귀한 헌신으로 보배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나웅초 감리교회 봉헌'

- 우기로 인해 건축이 완공되진 못했지만 시골 지역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큰 교회가 세워짐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앞으로 나웅초 지역이 더 많은 복음의 발이 일구어 지길 소망해 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번 선교 또한 주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시고,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를 너무 잘 아시고는 돕는이를 보내주시고, 상황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PRAY FOR ME...

안전과 건강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난 9월 10일 학원을 다녀오다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대부분의 도로가 교통질서도 신호체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도로를 건너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러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지만 너무 놀라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어깨와 가슴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중보해 주신 기도의 힘으로 지금은 건강합니다. 외국인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온데서도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진보에 기름 부스심이 있기를...

언어훈련 과정에 있는 지금 빠른 언어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 온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어훈련에 주의 기름부음이 있어 기억력과 암기력과 귀와 눈과 입을 열어 매일 매일 더 많은 소통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와 사역자들과의 소통과,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언어훈련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U.F.L 에 입학해 언어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올해 12월 미얀마 양곤 외국어 대학 미얀마어과(YUFL) 과정에 들어가 미얀마 언어를 공부하려고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접수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정통미얀마 언어는 외국어 대학에서 밖에 배울 수 없고, 또한 비자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어서 처음 언어연수를 하는 선교사들은 양곤 외국어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새로 생기고 서류를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서류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곤 외국어 대학에 입학해 정식으로 미얀마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영적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영적으로 암흑하고 우상의 견고한 진들이 둘러싼 이곳 미얀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깊은 곳까지 우상과 미신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믿는 이들이 더 깊은 영성과 주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 분열과 강박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고 저들 가운데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사66:13-

안간힘을 맞이하여 복된 명절 되시고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미얀마 양곤에서 기도 드립니다.

미얀마 주소

NO34/BD24, Shwe Ong Bin housing,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H.P : +95-9-425289573 E-Mail : sarahkjm@hanmail.net

김진명 선교사 후원회 “ 선물 ”

당 당 : 조용준 집사 (017-701-9141)

cujpd@nate.com

후원계좌 : 외환은행 620-208143-781 김진명

하나은행 608-910135-72707 김진명